

인천 계양을, 이재명 vs 원희룡

국민의힘, 단수공천 대상자 발표 안철수·방문규·이수정 등 25명 경기 분당을 김은혜-김민수 경선 비례 최영희, 현역 증컷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을)을 포함한 25명을 4·10 총선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원 전 장관과 이 대표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고 묻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서 어디 가냐.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한 바 있다.

인천에선 원 전 장관을 포함해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을),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심재돈 전 당협위원장(동구-미추홀갑),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연수갑) 등 5명이 단수추천 대상이 됐다.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 여당에 '불모지'인 수원은 영입 인사로 출마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김현준 전 국제정장(수원갑) 등 3명을 단수로 추천했다.

성남에선 안철수 의원(분당갑)을 비롯해 장영하 전 판사(수정)와 윤용근 전 국민의힘 정책자문위원(중원)이, 안양에선 최돈익 전 당협위원장(만안)과 임재훈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동안갑)이 단수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정부에 출마한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현역의원 증컷 컷오프 사례가 됐다. 이 지역은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부비서관이 단수추천을 받았다.

경기 지역의 단수추천자는 김중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고양병), 전동석 전 경기도의회 의원(광명을), 최기식 전 당협위원장(의왕-과천), 박관용 전 당협위원장(남양주을), 민주당에서 넘어온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까지 총 14명이다.

전북은 비례대표 재선인 정운천 의원(전주을)을 비롯해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전북형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이국종 병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회장(전주갑), 김민서 전 익산시의회 의원(익산갑), 문용희 전 전주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익산을),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정읍-고창), 강병무 전 남원축협조합장(남원-임실-순창) 등 6명이다.

전날 면접을 마친 인천-경기-전북 55개 지역구 중 30개 지역구는 경선 또는 전략공천을 위해 후보 확정이 보류됐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욱 예비후보 간 경선이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호떡공천' 논란을 낳았던 인천 연수을(김기흥, 김진용, 민현주, 민경욱, 백대용)도 단수추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평택, 안산, 부천은 선거구 확정과 맞물려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증가에 따라 평택은 2곳에서 3곳으로 늘고, 안산과 부천은 각각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평택을은 현역 3선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지만, 예비후보 4명이 더 도전한 상태. 이들은 지역구가 '평택병'으로 분구되면 이곳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단원갑은 재선을 지낸 김명연 전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고, 안산산북갑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신청했다.

한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박성호 예비후보는 '부적격'으로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김경만 “이낙연, 떠보기 말고 서구을서 붙자”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만 국회의원(민주·비례)은 15일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좌고우면 그만하고 광주 서구을로 출마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해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광주는 이것저것 재며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심판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며 “민주당 영이 하나로 뭉쳐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준석 공동대표와



손을 잡는 게 가깝거나 한 가라며 “이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로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비전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당을 창당하며 민주진영을 갈라치고 보수정당과 손잡고 ‘빅텐트’를 친 것은 광주시민의 마음에 큰 돌을 던지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공동대표는 모호한 말로 국민들과 당원을 떠보는 행위를 멈추고, 광주 서구을로 출마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라”며 “민주당 예비후보로서 광주의 싸늘한 민심을 제대로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주업 “각화 농산물 공판장에 문화지구 조성”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김주업 예비후보는 15일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을 이전하고 문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은 1991년 개장해 30년이 지난 현재 부지 협소, 시설 부족, 노후화 등으로 농산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림부 공동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광주역-송정역 통근 셔틀열차가 지난해 12월 운영을 중단하면서 인근 상권 소멸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광주역 폐쇄로 폐선



부지에 푸른길과 문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지구-자연과 학교 뒤편 도로를 개통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흥IC-동림IC 확장으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며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예비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원 방안 법제화 ▲문흥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구조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문금주 “농산물 최저가 보장·파크골프장 확대”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문금주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는 15일 국내 최대 농·어업 지역과 고령화 지역인 전남 현실을 반영한 농·어업 및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공을 쏟았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가격보장제 입법화,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농·어업인 직업병 제도 마련, 호도 상품 구매 환급제, 차대 안심마을 유치와 파크골프장 확대 등의 전남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약들이 전국 2위 수준의 농가인구와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인구 비율(26.0%)을



감안, 이들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농·어업인 및 노인 복지 향상뿐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 표심을 끌어들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라며 “지역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실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힘 “총선 후 김포 서울 편입 주민 투표”

배준영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총선 이후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께서 원하고 있으며 효과성 역시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부

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서울 편입 관련 투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경기도 분도(分道)와 동시에 논의하기로 했다.

배 위원장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면 김포시는 남쪽에도 북쪽에도 속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

도를 양립하는 과제로 삼았는데 민주당의 양립 불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오늘 이후로 본격적으로 김병수 시장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가 편입과 분도를 요청하는 곳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수 시장도 “총선 이후 빠르게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관계기관과 선관위의 빠른 검토가 필요하며 당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한다”며 “메가시티 육성을 포함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Advertisement for FSS (Fidelity Surety) with the slogan '보험사기 ZERO'. It lists various prohibited behaviors such as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and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It also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 fraud, including the FSS call center (1332) and website (www.fss.or.kr).